

인생의 유일한 해석자

본문: 창세기 40:1-15

유튜브: <https://www.youtube.com/live/JJvPZd36t34?si=evKYmvZggUlj9yVV> (주소 클릭-> 열기 클릭)

[새벽 말씀 묵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풀 수 없는 '삶의 수수께끼'와 억울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길어지면 숨이 막히고 조금해져, 세상의 얕은 지식이나 사람들의 말에서 서둘러 답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선부른 진단과 인간적인 계산은 우리에게 진정한 해답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깊은 상처와 혼란만 남길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바로 그러한 절대 절망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키려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차갑고 캄캄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버렸는지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요셉은 꿈을 꾸 근심하는 두 관원장을 향해 위대한 믿음의 선포를 던집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창 40:8) 그는 내 인생의 닫힌 문을 열고 꼬인 실타래를 풀실 유일한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당당히 고백한 것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며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간청했지만, 관원장은 감옥을 나서는 순간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기가 막힌 배신이지만, 이 잊혀짐의 2년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만약 요셉이 일찍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훗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과 야곱의 가정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시간표 속에서 가장 정확한 때에 일하시기 위해 그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내리는 선부른 평가와 내 조금한 해석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은 우리를 잊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내가 눈물 흘리는 그 문제의 현장, 사방이 막혀 답답한 그 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을 때(롬 8:28), 우리의 답답한 일상은 은혜의 성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말씀 관찰]

1.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어 깊은 근심에 빠진 두 관원장에게, 요셉은 해석이 누구에게 있다고 담대하게 선포합니까? (창 40:8)
2.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해 주면서, 그가 전직을 회복해 잘 되거든 자신을 기억하여 어떻게 해 달라고 간청합니까? (창 40:14)

[삶의 적용]

1. 내 이성과 경험으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선불리 판단하거나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던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2. 사람의 기약과 세상의 진단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 내가 처한 답답한 삶의 현장을 불평이 아닌 '주님이 임재하시는 은혜의 성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오늘의 기도]

내 인생을 향한 세상의 선부른 평가와 인간적인 해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석자 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신뢰하며 오늘을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